

# 2002 월드컵 감동...2020 K리그 함성으로

## K리그 보급자리 변신한 월드컵 성지

2002 한·일월드컵이 열린지 어느덧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날의 감동은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그해 여름은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기적과 함께 한국 축구에 많은 유산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실제 경기가 열렸던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의 함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현재 대부분 K리그 구단들의 홈구장으로 맥을 잇고 있다. 2020시즌 K리그 개막이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가운데 2002 월드컵의 성지 경기장들을 찾아 본다.

###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월드컵경기장 남측 전광판 뒤에는 '이곳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한 경기장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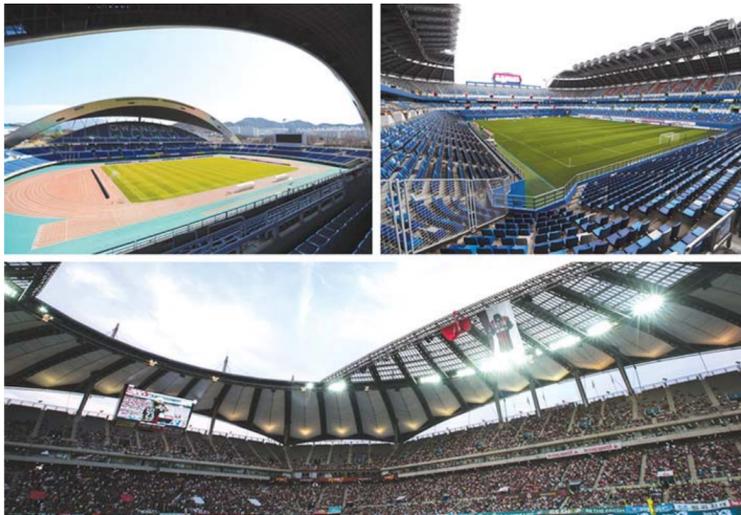
말 그대로 2002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이 스페인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서 5대3으로 꺾고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곳이다.

그 후 광주상무(현 상주상무)가 경기장을 사용해오다 2011년 시민구단 광주FC가 창단해 홈으로 써왔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이곳에서 팀 창단 이래 최초 우승, 다이렉트 승격, 팀 최다승(21승), 리그 득점왕(렐리페, 19득점) 배출 등 다양한 기록을 만들어냈다.

올해 구단 창단 10주년을 동시에 K리그1으로 승격한 광주는 정들었던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떠나 바로 옆인 연수체육시설 내 월드컵보조경기장에 조성한 축구전용구장으로 동지를 옮긴다.

3년 만에 1부리그로 돌아오게 된 광주는 새로운 전용구장에서 뛰어난 접근성과 쾌적한 관람환경을 토대로 올해 광주에서 축구 붐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2002년 월드컵에서 아시아 최초 4강 신화를 창조한 광주월드컵경기장. 안정환의 골든골을 앞세워 강호 이탈리아를 꺾고 8강 진출을 이뤄낸 대전월드컵경기장, 세네갈과 프랑스의 개막전이 열렸던 서울월드컵경기장 전경. 사진 위로부터 시계방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대전월드컵경기장



대전월드컵경기장은 총 좌석 수 4만903석으로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축구 전용 구장이자 국내 최초로 반 개폐식 지붕 구조를 갖춘 경기장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2002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이 전봉 강호 이탈리아와 16강전을 치렀는데 1대0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후반 종료 직전 설기현의 동점골과 연장전 안정환의 골든골까지 짜릿한 2대1 역전승을 기록했다.

2002 월드컵 이후 대전월드컵경기장을 홈으로 사용 중인 대전은 2020시즌을 앞두고 기업구단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재창단했다.

특히 초대감독 황선홍은 대한민국 4강 신화의 주역이자 이 경기장에서 이탈리아전에 출전했던 인연이 있다.

올 시즌 새롭게 변화한 대전이 한국 축구의 역사의 현장에서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 본다.

### ▶서울월드컵경기장



2002 월드컵 이전 한국 축구의 성지가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이었다면, 월드컵 이후로는 단연 서울월드컵경기장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총 좌석 수 6만6천704석으로 현재 아시아 축구 전용구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02 월드컵 당시에는 개막전인 세네갈 대 프랑스의 경기가 열렸다. 월드컵 이후 대표팀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은 A매치 흥행 단연 1순위경기장이다.

한편, FC서울은 2004년부터 이곳을 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토포담계 매년 K리그 평균관중 1위를 기록한다.

특히 지난 해에는 K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총관중 30만명(32만4천162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게다가 서울은 이곳에서 K리그 우승 3회, FA컵 우승 1회를 기록하는 등 성적과 인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팀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박희중 기자>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선수 지원

### 육상 김하은에게 후원금 전달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장애인체육회 선수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광주 장애인육상인육상을 빛낸 김하은(시각장애)에게 매월 50만원씩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김하은은 육상 트랙 시각장애인(T12) 단거리 3종목 한국 신기록 보유자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 주 종목인 100m, 200m, 400m에서 3관왕을 놓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0km마라톤에도 참가해 은메달을 획득한 광주장애인체육회 육상의 간판선수다. 신영용 광주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장애인체육선수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후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대한체육회, 연기된 올림픽 대비 훈련 계획·메달 목표 '새판 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의 새로운 개막일이 2021년 7월23일로 확정됨에 따라 대한체육회도 새 판을 짰다.

2일 현재 내년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남은 날은 477일이다. 1년이 더 남았다. 체육회는 종목별 국제연맹(IF)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로 3주 이내에 올림픽 출전권 예선 일정을 확정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총복 전진 국가대표선수촌에 재입촌하면 훈련 계획과 메달 목표치 등을 재조정한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올림픽 대비 전체 계획은 올림픽 출전권 예선 일정이 나와야 세울 수 있다"며 "체육회는 선수들의 재입촌 후 지도자 간담회를 열어 종목별 훈련 일정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림픽 1년 연기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크게 악영향을 끼친 점을 감안해 체육계에선 나온 다. <연합뉴스>

이 덕분에 우리 선수들이 다시 '올림픽 준비 모드'로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체육계는 예상한다. 체육회는 코로나19로 선수촌에 발이 묶이고 불투명한 올림픽 일정 탓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선수들이 3주간의 휴식과 재입촌을 위한 2주간의 자가 격리 절차를 마치고 다시 선수촌에 오면 새 기운으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리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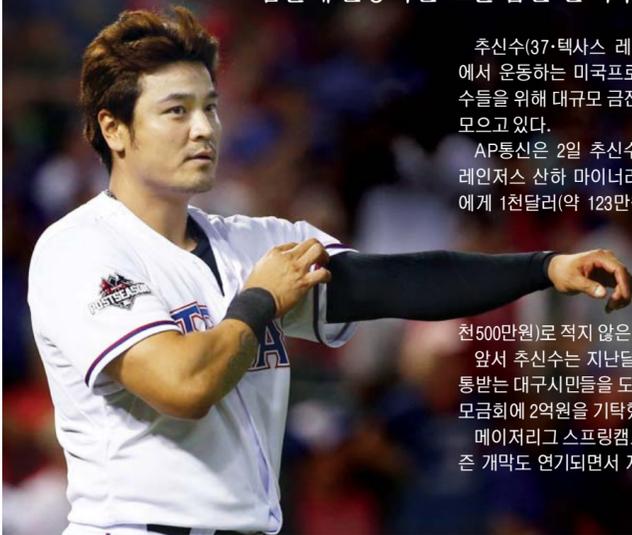
도쿄올림픽 메달 목표치도 1년 연기로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 체육회는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렸다면 금메달 최대 10개를 따내 종합 10위 이내에 오르겠다는 '10-10'을 목표로 내세웠다.

금메달 전략 종목은 세계적인 실력을 뽐내는 양궁, 펜싱, 태권도, 여자 골프, 유도, 사격 등이다. 야구, 축구, 남자 기예체조, 여자 배구도 메달 기대 종목이다. <연합뉴스>

체육회 측은 "베테랑 선수들이 내년까지 지금의 기량을 유지할지, 이들이 대신할 젊은 선수들이 얼마만큼 성장할지에 따라 메달 목표가 정해진다"며 "올림픽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각 종목 선수들이 어떻게 넘겨나야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이젠 돌려줄 때”...추신수의 ‘놀라운 선행’

팀 마이너리그 선수 전원에 1천달러씩 지원  
“힘들게 운동하는 그들 돕는 건 아주 좋은 일”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힘든 환경에서 운동하는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위해 대규모 금전 지원에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AP통신은 2일 추신수가 소속팀인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선수 191명 전원에 1천달러(약 123만원)의 생계 자금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총액이 19만1천달러(약 2억3천500만원)로 적지 않은 돈이다.

앞서 추신수는 지난달 10일 코로나19로 고동받는 대구시민들을 도우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원을 기탁했었다.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가 중단되고 정규시즌 개막도 연기되면서 자택에 머무는 추신수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나도 마이너리그에서 7년 동안 뛰었는데 금전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라며 “지금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당시보다 환경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금전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며 지원 배경을 밝혔다.

추신수는 지난달 중순 스프링캠프가 중단된 직후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돕는 방안을 놓고 아내와 상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는 시즌이 중단되면서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최대 주급 400달러(약 5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대다수 선수가 생계를 위협받아 다른 부업을 찾고 있다.

텍사스와 1억3천만달러에 7년 계약을 맺은 추신수는 마지막 해인 시즌 팀 내 최고액인 2천100만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추신수는 “20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야구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리게 됐다”면서 “그래서 이제는 돌려줄 때다.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을 돕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병역특례’ 손흥민, 20일 입소 기초군사훈련 받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혜택’을 받은 손흥민(28·토트넘)이 20일 제주도 해병9여단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오는 20일 제주도의 해병대 9여단 훈련소에 입소해 3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라며 “지난달 28일 입국한 이유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손흥민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일정 기간 봉사활동(544시간)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다만 손흥민의 훈련소 입소 훈련에는 변수가 있다.

만약 EPL 사무국이 오는 30일까지 연기된 프리미어리그를 5월에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일정을 미루고 팀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 “집콕운동”으로 건강 지켜요

문체부, 운동 영상 매주 배포...대국민 영상 공모전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외 체육 활동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콕운동’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요’라는 표어의 캠페인을 펼친다.

문체부는 2일 “이번 캠페인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과 운동 수칙을 안내하고, 전문가의 운동 상담을 제공한다”라며 “이와 함께 ‘집콕운동’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주 체육센터의 운동 처방사가 영상을 통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소개하고, 양학선과 신수지 등 유명 선수들이 직접 시연한 국민체조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영상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의 유튜브 채널에

서 볼 수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운동 상담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국민 누구나 국민체육진흥센터 누리집(http://nfa.kspo.or.kr)으로 집에서 가까운 체육진흥센터를 지정해 신청하면 운동처방사가 온라인으로 맞춤형 운동을 상담해준다.

이밖에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집콕운동’을 주제로 유튜브를 활용한 대국민 영상 공모전도 4월 중에 실시한다. 공모전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은 국민체육진흥센터 누리집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온라인 체육 활동 콘텐츠를 통한 ‘집콕운동’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